

무주군, 관광잠재력 갖춘 도시 선정

SRT 어워드 '2024 방문도시' 선정... SRT매거진 11월호에 무주 명소 적상산 소개

무주군이 수서발 고속열차 SRT에서 주관한 'SRT 어워드'에서 관광잠재력을 갖춘 '2024 방문도시'로 선정됐다. 무주군은 이번 평가에서 덕유산과 구천동계곡, 어사길, 태권도원, 반디랜드, 반딧불이, 적상산과 적상산사고, 머투와인동굴, 무주산골영화제와 무주 반딧불축제 등의 풍부한 관광잠재력으로 주목을 받았다.

2024 방문도시 추천 여행자를 겨냥한 SRT매거진 11월호에는 무주군 명소 중 한국 100대 명산 중 하나로 꼽히는 적상산이 실렸다.

편집부는 적상산이 장도바위를 비롯해 향로봉과 천일폭포, 적상호 등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며 산행하기 좋은 곳으로 소개하고 있다. 머투와인동굴은 무주 산머투로 제조한 와인(5종)과 족욕 체험이 가능한 곳으로 꼽았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2024년 자연특별시 무주 방문의 해 시행을 앞두고 무주가 가진 관광잠재력을 인정받고 이를 전국에 알리게 돼 기쁘다"며 "이번을 계기로 자연특별시 무주의 가치를 증명하고 방문객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 무주가 언제든 꼭



무주군이 수서발 고속열차 SRT에서 주관한 'SRT 어워드'에서 관광잠재력을 갖춘 '2024 방문도시'로 선정됐다.

가 봐야 하는 곳, 언제 가봐도 만족스러운 곳이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SRT 어워드'는 SRT매거진(수서발 고속열차 차내지·여행잡지)이 국내 여행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개최해오고 있는 것으로, 올해는 SRT매거진에 소개됐던 전국 39개 도시 중 최고의 여행지를 묻는 독자(1

만 152명 대상) 설문과 여행작가, 여행기자 등의 전문가 평가, 에디터 평점, 방문객 DB분석, 온오프라인 홍보자료 편의성 평가를 거쳐 대상 10곳과 2024방문도시 10곳을 선정했다.

관련 내용은 SRT 열차 좌석에 비치된 SRT매거진과 누리집(<https://srtmagazine.co.kr/>)에서도 웹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태권도법에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명시돼야"

무주군의회 문은영 위원, 태권도진흥 기본계획에 포함 주문

무주군의회 제30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문은영 위원이 정부 태권도진흥 기본계획에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이 포함되도록 무주군이 움직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은영 위원은 지난 17일 열린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사전타당성조사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태권도진흥 5개년 기본계획이다. 그런데 태권도진흥재단이 발주한 제4차 태권도진흥 기본계획 수립연구용역 제안요청서에는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며 이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은영 위원은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이 현행 태권도법에 명시되어 있

지 않아 향후 5년간 태권도 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는 계획에 빠져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이 이미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점을 볼 때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치법」 제정은 충분히 명분이 있다"며 설립근거와 당위성을 마련하는 일에 매진할 것을 주문했다.

문은영 위원은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추진은 2020년부터 시작해 이미 경험과 실력이 충분히 축적되었다. 이제는 치밀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할 때"라며 무주군이 계획한 추진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은영 위원은 무주군이 태권도시로서 위상과 긍지를 갖기 위해서는 생활태권도 활성화가 중요하며 방과후 학교와 군민 감습 등의 태권도 보급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내도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무주군의회 오광석 위원, 상습침수 발생 예산 투입 의문 제기

무주군의회 제30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오광석 위원이 내도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사업의 효과와 지속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오광석 위원은 지난 16일 열린 관광진흥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10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내도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가 침수피해를 입은 점을 상기하며 매년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오광석 위원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집중호우와 용담댐 방류로 물

에 잠기고 태풍으로도 절반 이상 침수 피해를 입었다. 문제는 이곳이 하천구역이어서 매년 침수피해가 발생한다. 그래서 매년 불필요한 예산이 수반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무주군이 상습침수공간 활용방안으로 유채꽃과 코스모스 등 경관작물을 식재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광석 위원은 "당초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곳에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한 점이 있었다.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면 농업진흥구역 해제해야 하는데 이 협의도 쉽지 않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도 관광객 수나 경제성은 아주 낮다. 이제는 이 사업을 계속할지 정리할지 판단해야 할 때"라며 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습담배수개선사업 내년에도 지속 추진

장수군, 11월 중 용역 조기 착수 사업대상지 선정

장수군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습담배수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습담배수개선사업은 배수가 불량한 습담을 대상으로 유·무공관을 매설해 원활한 배수를 돕는 사업으로 배수경로 확보와 농기계의 진·출입 및 각종 발작물 재배에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다.

군은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습담배수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도 총 예산 20억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했다.

습담배수개선사업은 해마다 주민들의 높은 호응도로 영농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점을 인정받아 '2023년 장수군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으며 행정기관에서도 큰 호응

을 얻고 있다.

이에 장수군은 11월 중 용역을 조기 착수해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최훈식 군수는 "습담배수개선사업은 군민들의 안전한 영농기반 조성과 소득증대 기여를 위한 필수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군민들의 불편 해소 및 영농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심폐소생술·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

진안군보건소(소장 송미경)는 지난 17일 보건소 강당에서 자동심장충격기(AED) 의무설치 대상인 보건의료기관, 체육시설 관리책임자와 그 외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공공서 관리자 20여 명 대상으로 심폐소생술(CPR)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습득

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수 있는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박정호 교수가 강사로 나서 심정지 발생 후 골든타임인 4분 내 심폐소생술 시작의 중요성과 심폐소생술 순서인 'CAB Compression(가슴압박), Airway(기도확보), Breathing(호흡)'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AED 기기 작동법, 가슴 패

드 부착 위치 등을 상세히 교육하며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심정지 환자 발생 시 누구나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힘을 뒀 말했다.

송미경 소장은 "계절상 순환계통 질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동절기를 맞아 비상 상황에 초동 조치를 잘할 수 있는 응급처치 교육을 추진해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일반인 심폐소생술이 더 보편화 될 수 있도록 군민 대상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김장철 성수식품 위생관리 집중점검 나서

진안군은 김장철을 맞아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김치류, 젓갈류, 고춧가루 등을 제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소비식품위생감시원과 김장철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부패·변질된 원료(배추, 고추, 마늘, 수산물 등) 사용 여부 △무등록 또는 무표시 제품(원료) 사용 여부 △원료보관실, 세척실, 제조과정 및 기계·기구류 정결

관리 여부 △생선·작업 서류, 원료수출, 거래기록 등 법적서류 작성 여부 △식품공전 제조·가공기준(분말 제품 금속 이물 제거 공정 등) 준수 여부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배추·무·양파 등의 농산물을 수거해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을 검사하는 등 김장철 주 사용 품목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시행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무주반딧불포도 베트남 수출길 올라

무주반딧불포도(이하 사인머스켓)가 수출길에 올랐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 17일 무주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베트남에 보낼 사인머스켓 총 8톤을 선적했다.

이 자리에는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한 박동열 무주농협 조합장과 김성곤 구천동농협 조합장, 양시춘 무주반딧불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와 포도 농가 등 10여 명이 함께해 수출 성공과 판로 확대를 기원했다.

무주반딧불조합공동사업법인 관계자는 "무주반딧불 포도(사인머스켓)는 높은 당도와 식감이 우수한 과육, 그리고 월등한 품질로 베트남에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라며 "수출길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품질 및 물량, 판로 확대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내년도 마을만들기 단계별 사업설명회 개최

진안군은 지난 17일 마이산에코타운에서 2023년도 우수마을로 선정된 9개마을 주민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마을만들기 단계별 사업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지난 2일 진안 마을공동체 한마당에서 2023년 마을만들기 단계별 사업 우수마을로 선정돼 수상한 그린빌리지 6개마을(최우수·추천중리, 우수·상진중리, 마령원평지, 부귀대곡, 부귀방각, 부귀오복)과 참살기좋은마을 3개마을(최우수·성수 중령, 우수·추천 학선동, 안천 율현) 주민들이 참여했다.

진안군 마을만들기 단계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진안군청 농촌활력과 김경민 주무관의 '진안군 마을만들기 이해'에 대한 강의를 시작으로 보조사업 이해 및 집행정산, 24년 참살기좋은마을 6개 마을 대상 사업계획수립 워크숍 등으로 진행했다.

진안군은 당해 연도 하반기에 차년도 사업지구인 우수마을을 선정 후 사업설명회 개최와 사업계획 수립과정을 마무리해 다음연도에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